

##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 9강 진리의 영성

#### 1. 예레미야의 설교: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유다 백성(렘 44:1-14)

예레미야 44장은 주전 587년의 유다 왕국 멸망사건으로 아웨의 심판예고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료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아웨의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선포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 장에는 유다왕국이 완전히 몰락한 이후 이집트에 있는 유다인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담겨있다. 이 장은 출애굽 사건(출 1-14장)과 그 사건의 전주곡(창 37-50장)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다. 예레미야 44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1-14절: 예레미야의 설교
- (2) 15-19절: 백성의 공개적인 반론
- (3) 20-30절: 백성의 반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과 심판선포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예레미야 44:1-14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1) 1-6절: 지나간 유다역사의 회고
- (2) 7-10절: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
- (3) 11-14절: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1-6절은 지나간 유다의 역사를 회고한다. 1절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의 대상이 되는 네 지역들이 나열된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므깃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렘 44:1).

이 가운데 므깃돌(Migdol), 다바네스(Tachpanhes), 놉(Nof)은 모두 이집트 북부 지역에 위치한다. 이들과는 달리 바드로스(Patros)는 이집트 남부 지역에 있다(참조. 사 11:11; 겔 29:14; 30:14). 이 지역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거주한 곳들이다. 유대인들은 나일 강 근처의 델타 지역과 이집트 북쪽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였다.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역지로 끌려온 곳은 다바네스였다(렘 43:7). 예레미야의 선포지역이 다바네스 이외의 지역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선포는 최근에 이집트에 도착한 피난민들뿐만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 거주하였던 유다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유다 왕국의 멸망 사건을 상기시킨다(2절). 본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다(3절).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총동원하여 파송하여 “제발 내가 미워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말아라”고 출근 타일

렸다(4절).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향을 피우는 일을 계속하였다(5절). 이에 대하여 야웨 하나님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곳은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버렸다(6절).

두 번째 단락인 7-10절은 유다 백성을 향한 책망을 보여준다. 7절은 “그리고 이제”(히\_웨아타)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젓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렘 44:7).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이 어구(“그리고 이제”)는 수사적 장치로서 이는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할 때 쓰인다. 7절부터는 예언자의 설교가 명백하게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판을 불러 들였던 그런 죄악을 이집트에서도 계속 저지름으로써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8절). 여기서 “너희 손이 만든 것”이란 표현은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 낸 작품(우상의 형태)이나 또는 ‘그들이 행한 짓거리’를 뜻한다. 9절에서는 잘못된 우상숭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로 부인들이 언급된다.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렘 44:9).

이는 17-19절에 묘사하고 있는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과 관련되어있다. 이 의식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다. 이는 세 번째 단락인 11-14절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였다. 온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다(11절). 이집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잡아 그곳에서 모두 멸하실 것이다. 여기에는 빈부귀천(“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가릴 것이 없다(12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심판에 상응한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렘 44:13).

이들 가운데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14절). 여기서 “도망하는 자들”이란 이 단락의 맥락에서 보면 구원받은 ‘남은 자’라기보다는 ‘심판의 증인’으로 이해된다. 만약에 남은 자가 있다면, 이들은 남은 자 가운데 남은 자로서 이미 가치를 상실한, 심판을 증거 하는 잔존자(殘存者)에 불과하다(암 3:12).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국가의 멸망이라는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본국에서의 우상숭배가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여 동지를 튼 이집트에서도 계속된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의 방향은 계속된다.

## 2. 백성의 공개적인 반론: 여전히 풍요와 축복만(렘 44:15-19)

예레미야의 경고는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힌다. 예레미야 44:15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인과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났다고 묘사한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렘 44:15).

여기서 ‘모든’(히\_כול)이라는 형용사가 세 번이나 반복된다. 이는 집단적인 행동, 집단적인 책임성 그리고 집단적인 허물을 강조한다. 이들은 “네가 야웨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16절)라고 예레미야의 경고를 단호하게 거역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유다 땅에서 해오던 대로 하늘의 여왕(the Queen of Heaven)을 섬기겠다고 선언한다(17a절).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으나(17b절), 이 섬김을 폐하자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확신한다(18절). 19절은 주로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였던 이 제사에 남편들의 후원이 있었음을 첨언(添言)하고 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렘 44:19).

19절은 남편들도 이 숭배의식에 깊이 관련되어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7:17-19에는 이런 제사의식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19)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렘 7:17-19).

거기에는 모든 가족이 다 연류 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즉 아이들은 나무를 모았고 아버들은 불을 피웠으며, 여자들은 하늘 여왕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기 위해 가루를 반죽하였다. 신들에게 곡식과 떡, 그리고 과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고대 중동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 이 과자는 하늘 여신의 모양을 본뜬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 이 과자 모양은 천체 여신의 상징적인 대리를 표하는 별 모양의 형태이거나 시리아와 팔레스틴에서 널리 유포된 나체의 여신상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하늘 여왕이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다. 학자들은 아스타롯(Astarte,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Ishtar])이나 아낫(Anat) 또는 아세라(Asherah)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라

고 주장한다. 아무튼 이 여신은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이 여신은 여인들 사이에서 안전한 자녀 출산, 건강한 후손 출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갖춘 자로 숭앙(崇仰)되었다. 자녀 출산과 결부된 위험들, 광범위한 유아 사망, 그리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질병이 어린 생명들을 앗아가는 현실에서 그 생명의 여신은 한층 더 증가된 매력과 외경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여신숭배제의는 많은 세대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실행되었으며, 거의 뿌리 뽑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

당시 백성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평온했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주전 696-642년)을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렘 44:17-18).

므낫세의 시대는 온갖 비(非)야웨종교가 자유롭게 허락되었다. 그 뒤 요시야가 종교개혁(주전 622년)을 단행함으로써 이방신들을 없애버렸다. 일군의 유다 사람들은 요시야의 개혁을 구국적 조치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패망을 재촉한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는데도 국가적인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개혁으로 인해 이방신 예배가 금지되자 여러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중적인 종교전통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국가적인 토대 위에 구축되고 높은 도덕적인 엄격성과 의도성을 가진 ‘야웨 종교’(Yahwism)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생명력을 부양시키고 증진시키는 일만을 최우선시 하는 ‘생명력의 종교’가 있었다.

특히 이 생명력의 종교전통은 바알신과 여신 아낫의 종교제의 전통을 중심으로 유지 되었다. 이 제의의 목적은 풍요와 다산, 그리고 축복을 증진시키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이 자연적 종교는 도덕적인 요구들의 족쇄에 전혀 매여 있지 않았으며, 오직 적당한 희생 제사들을 바치고 소정의 제의들을 준수하기만을 요구한다(17절).

이에 비해 예레미야가 옹호하던, 야웨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엄격한 예언자적인 전통은 더 사려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종교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과 도덕적인 공명정대(公明正大)를 요구하였다.

종교학의 용어를 빌리면, 저등 종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신을 고용한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 공동의 선을 위한 규범을 만든다. 저등 종교는 개인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고등 종교는 공동의 선이 최우선이다. 바알 신앙은 저등 종교 현상이고, 야웨 신앙은 고등 종교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이 늘 개인의 풍요와 다산 그리고 축복이라면, 우리는 야웨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인 하늘 여왕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이 여신은 적당한 제물과 예배의식만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야웨는 계명에 순종하며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 3. 백성의 반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과 심판선포: 진리 따라 한평생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반론을 듣고 이에 대하여 책망조로 반박하고(20-23절)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포한다(24-30절).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조상과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우상을 섬긴 것을 야웨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렘 44:21).

여기서 ‘기억하다’(히\_자카르)는 단어는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히브리어 ‘자카르’(히\_기억하다)는 실제로 주목하고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억압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출 2:24; 참조. 출 6:5).

이 경우에 기억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행위를 직접적으로 이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징벌을 일으키신다. 야웨 하나님은 이집트의 유다 공동체가 거짓 신들을 숭배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 그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야웨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야웨의 율법과 규례와 권고들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들이닥친 것이다.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춥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렘 44:22-23).

유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다. 유다 백성들은 국가의 멸망원인을 우상 신들의 제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고, 예레미야는 우상 신들의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국가가 멸망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원(誓願)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한다.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25절).

이들의 고집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다. 이제는 각자가 갈 길을 가고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고 비꼬는 투로 말하며 더 이상 권고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의 고집스러운 행실에 대한 심각한 결과만을 알려준다. 이집트에 거하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여 멸절될 것이다(26-27절). 이러한 심판은 11-14절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 여호와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26b절)는 표현을 통하여 심판의 심각성과 확실성을 강조한다. “주 아웨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는 맹세양식(Eidesformel)은 예레미야 16:14-15와 23: 7-8의 구원선포를 암시한다. 그곳에서 이 양식은 유다 사람들이 흩어진 나라들로부터 고향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미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할 자리가 없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히\_쇼케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27a절)라는 말씀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예레미야 31:27-28(“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의 구원약속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들에게는 이러한 약속마저도 박탈된다. 28절은 심판의 칼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이 생존할 것을 예고한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렘 44:28).

이들 남은 자들은 대대적인 심판의 증인 역할을 한다. 이들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말과 유다 사람들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진리였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28절은 아마도 주전 568년에 발생했던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이집트 침공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렘 43:8-13; 46:13-17). 이 침공은 이집트가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의 반란에 동조할 수 없도록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바벨론의 왕은 속국(屬國)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었다(렘 43:11). 바벨론의 이집트 침공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이집트의 신전들을 가혹하게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렘 43:13). 그것은 이집트의 신들을 격렬하게 모독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집트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증명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느브갓네살의 이집트 침공을 아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해석하였다(렘 43:10). 아웨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도 있을 수 없었다. 주전 568년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로 행진해 들어갔을 때 그것은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던 것이 치명적인 오류였다는 증거로 보였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유다사람들을 벌할 심판의 표징을 제시한다(28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느브갓네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 같이(주전 587년), 이집트의 왕 호브라(Hofra, 주전 589-570년)가 원수의 손에 암살당한다는 것이다(30절). 아프리스(Apries)라고도 하는 호브라는 주전 588년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면 시드기야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유다에 군대를 파견했던 이집트 왕이었다(참조. 렘 37:5).

예레미야는 호브라가 느브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의 대적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호브라는 그의 통치 말년인 주전 570년에 이르러 리비아 전투 중에 일어난 군대 반란을 진압하고자 아마시스(Amasis) 장군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아마시스(현재의 Ahmose II, 주전 570-526년)는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고 호브라와 맞서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그로부터 3년 후 호브라를 처형하였다. 이 아마시스가 주전 568년의 느브갓네살의 침공을 맞이하게 되었다. 호브라의 죽음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 됨을 즉 유다 사람들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다.

## 나가는 말

예레미야 44장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아웨 대한 직접적인 반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우 중의 하나이다. 이 장은 이집트에 잔존해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임할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은 주전 568년에 이집트를 침공한다(28절). 이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80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에 죽었을 것이다. 아무튼 예레미야 4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다. 동족과의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의 실패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동반되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원치 않는 이집트까지 끌려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족 유다의 반대와 박대를 경험했던 예레미야(16절). 예언 활동 초기에 선포한 내용(렘 7:17-20)을 마지막 순간에도 또다시 반복해야만 했던 예레미야(25절). 그는 일생을 바쳐서 4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유다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23절). 그래도 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만을 외쳤다(겔 2:7). 진리는 듣는 사람들의 동의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에게는 청중의 반응보다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다수의 사람을 보지 않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한 것이다. 한평생 진리만을 따른 한 예언자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아웨신앙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인식을 넘어서는 차원도 있다. 이때부터는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길을 걷는다. 보통사람의 눈에는 유별난 삶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왕따의 삶을 살지

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행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진정하다면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씩 생길 것이다. 당대에 외면받는다 할지라도 후대의 역사는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 외로움과 고독의 길이었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의 길이었을 것이다. “나는 나의 길 가련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련다.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즐기는 삶을 산다.

총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한시 2편이 새로 발굴됐다(2009년 3월 21일 조선일보).

빈궁과 영달은 오직 저 하늘에 달렸으니  
모든 일은 모름지기 자연에 맡기리라  
부귀함은 때가 있으나 홀로 차지하기 어려운 법  
공명이란 임자가 없어 번갈아 서로 전하는 것이네  
마침내 멀리 갈 때는 천천히 걷고  
처음에 먼저 오를 때는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도성의 누런 티끌 속을 헤쳐 나아갈 길에  
남이 뒤를 따라가되 채찍질하지 말라

세속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와 공명에 연연하지 말고 정진하되 지나치지는 말라는 교훈이다. 또한 자신을 좀처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딛고 “나는 나의 길을 걸겠다”는 고독함과 강직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을 절대로 추월당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길이 그러했다.